생의학산업 벨트를 가다 ③ 완도

7 약산 생약초 테마파크

약용식물 생장 천혜 기후…희망 키우는 '약초의 섬'

노화방지·성기능 개선 효능 '삼지구엽초' 도시민과 직거래

생약초·흑염소·삼문산 관광사업 연계 주민소득 창출 박차

완도 약산도(藥山島)는 '약초의 섬'이다.

약산 삼문산(356m) 등지에 자생하는 식물 616종 가운데 130여 종이 약초이다. 조선시대 왕실에 약초를 진상하는 약초원의 기능을 담당했으며 조약도(助藥島)라는 옛 지명 역시 생약초 자원의 보고(寶庫)였음을 시사한다.

지난 16일 찾은 완도군 약산면 장용리 선죽마을 삼문산 자락. 주민들이 165㎡(50여 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지난해 12월 뿌리줄기를 심어 최근 수확기를 맞은 약용식물 채취에 열중하고 있다. 한 뼘쯤 곧추 올라온 줄기에서 다시 세 갈래의 가지가 나뉘고 각 가지마다 석 장의 자그마한 잎을 달고 있는 바로 '삼지구엽초'(三枝九葉草)이다.

'음양곽'(淫羊藿)으로도 불리는 삼지구엽초는 중국 의학서인 본초강목에 "사천성 북부에 음양이라는 동물은 하루에 100번 교미를 할 정도로 건강하다. 이는 곽(藿)이라는 풀을 먹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된 한약재로 노화방지, 성기능 개선, 면역 강화 등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채취한 삼지구엽초는 전국으로 입소문이 나며 도시 소비자들과 직거래로 판매되고 있다.

◇약산을 약초재배단지로 특화= 삼지구엽초를 비롯한 더덕, 도라지, 적(赤)하수오 등 약용식물과 흑염소가 '약초의 섬' 약산의 옛 명성을 살리는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2007년부터 약산지역의 특화품목인 생약초를 재배하는 단지조성에 발벗고 나섰다. 지역특성에 부합한 생약초 재배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생약초를 테마로 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은 1단계로 지난 2007년부터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89 농가가 참여하는 생약초 재배단지 18ha를 조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완도군의 '약산 생약초 명품화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생약초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군은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삼지구엽초를 비롯한 생약초 생산기반을 지원한다. 특히 흑염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흑염소 방목 사육시설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학습장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흑염소 가공시설을 현대화하고 흑염소 저온저장고·번식사육사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약산 흑염소는 자연상태로 방목돼 삼문산 등에 자생하는 각종 약초를 먹고 자라 건강 자양식품으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흑염소 주요 성분으로는 세포노화 방지 등에 효과가 큰 비타민E(토코페롤)를 비롯해 칼슘, 인, 철분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삼지구엽초와 한약재를 배합한 흑염소 엑기스를 2개소에서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삼지구엽초를 원료로 한 사료도 개발중이다.

◇약산 생약초와 흑염소를 명품화·기업화= 군은 약산 생약초 사업 외에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비 66억원을 투입해 특산물 판매장과 축사, 2천m 펜스 설치 등 흑염소 특화사업을 펼친다.

이와 함께 오는 2012년까지 도서개발 사업비 44억원을 투입해 삼문산 전망대 설치, 등산로 개설, 생태공원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사업과 연계한 농외소득을 창출할 계획이다.

'약산 생약초 테마파크' 조성은 지역특산물인 생약초와 흑염소의 체계적인 생산·가공→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 관광사업으로 이어지는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사업인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4월 10일 생약초 재배농가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작목반과 흑염소 사육농가로 구성된 흑염소 영농조합법인 등 주민 8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약산 생약초 특화연합회'(회장 최일석)를 만들었다.

연합회는 창립 이후 삼문산 일원에서 개최된 '약산 진달래축제' 행사장에서 삼지구엽초와 흑염소 제품 무료 시식회를 개최, 지역특산품 홍보에 나선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경남 (주)진주 장생 도라지와 산청 전통한방 휴양 관광지 등을 견학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일석(60) 약산 생약초 특화연합회장은 "약산은 약용식물 생장에 알맞은 일교차와 해풍 등 기후조건을 갖췄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향토자원인 생약초와 흑염소를 지역발전을 이끄는 특화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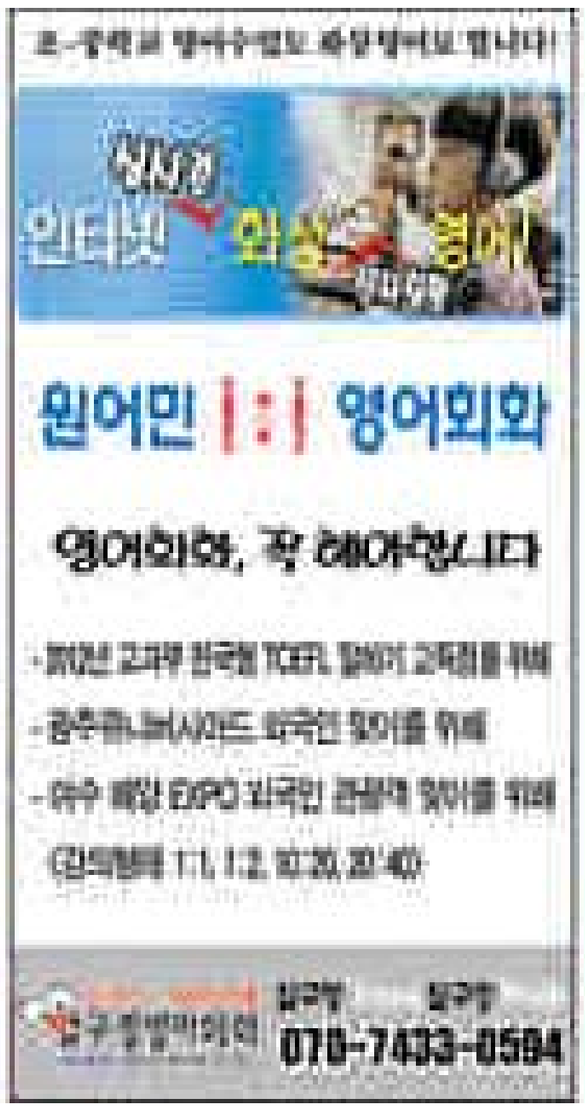
완도 약산도는 이제 섬이 아니다. 지난 2007년 6월 강진 마량과 완도 고금을 잇는 고금대교가 세워지며 뭍과 연결됐고, 완도 신지도~고금도간 다리가 내년 5월 착공돼 2015년께 완공되면 비약적인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김종식 군수는 "약산 특산물인 생약초와 흑염소 사업의 규모화·기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며 "도서 개발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예산을 투입해 관광 인프라구축과 기초생활 환경개선사업을 병행 추진, 권역별 특화사업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최일석 약산 생약초 특화연합회장(사진 오른쪽)과 정기홍씨가 약산 죽선리 삼문산자락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에서 삼지구엽초를 채취하고 있다.

〈적하수오〉

〈흑염소〉

〈도라지〉